

## 『靈樞』 「病傳」에 對한 研究

徐正敏 · 陸相元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A study on the Byeong Jeon(病傳) of the Young Chu(靈樞)*

The Byeong Jeon(病傳) is explained that pathogenic factors have been conveyed from one visceral organ to another visceral organ. This pathological process is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triction among the Five Elements and the pathological convey between the exterior-interior viscera. If this convey is processing, in the result, it is referred to die.

It can be divided two chapters by contents.

In the first chapter, It is explained a several medical treatment. If the Sa qi(邪氣) having been conveyed from exterior and interior according to their locations, it will be a die or live. Oriental medicine doctor don't to be excessively attached at a several medical treatments, research on pertinently treatment to the symptoms of disease. Because pathogenesis of a disease is the imbalance of yin and yang, disease can be diagnosed with the deficiency and excess of yin-yang, in addition to, doctor must treat a patient by this theory

In the second chapter, It is explained that the theory of restriction among the Five Elements and the pathological convey between the exterior-interior viscera in according to the pathogenic factors make an invasion upon visceral organs.

Key Words: Byeong Jeon(病傳), Restriction among the Five Elements(五行相克)

## I. 緒 論

「病傳」은 『太素』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靈樞』第四十二에, 『甲乙經』卷六 「五藏傳病大論」第十에, 『脈經』卷六 第一

三五六七九十에, 『千金』 卷十一·十三·十六·十七·十九·二十 第一에, 『類經』卷十八 「疾病類·病傳死期」에 나뉘어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病邪가 內臟으로 들어가 다른 臟器로 傳變되는 과정을 주로 논술하였고, 邪氣가 內臟에 들어갈 때에 먼저 어떤 臟에서 病이 발생되고 五行相克의 순서나 表裏傳變에 의하

여 다른 臟器로 病이 傳해지며 계속해 傳變하면 죽게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렇게 病邪가 內臟에서 傳變하는 내용을 위주로 논술하였으므로 「病傳」이라 篇名한 것이다<sup>1)</sup>.

本篇을 내용상 두 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章은 여러 가지 治法을 먼저 말한 뒤에 邪氣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傳變될 때에 治療할 수 있는 경우와 治療할 수 없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논술하고, 여러 治法에 얽매이지 말고 病證에 적절한 治法을 窮究하여 陰陽虛實의 이치와 病의 변화를 살펴 治療에 임해야 하는 내용을 언급하였고, 第二章은 邪氣가 傳入된 臟器에 따라서 五行相克의 順序와 表裏傳變에 의하여 몇 일만에 다른 臟器로 傳變되고 또한 刺鍼해도 살지 못하고 죽는 때가 있음에 대해 논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養生 및 醫道에 대하여 짚막하게 언급했고,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지만 病이 傳變하는 이치는 누구나 쉽게 理解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版本마다 글자가 서로 다르고 病傳하는 日數도 또한 다소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版本을 검토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考察하여 보다 정확한 의미를 밝히 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直譯·意譯·結論의 순서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任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중심으로, 張의 『類經』,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조사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한 풀과 訓을 선택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八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에서 내용이 유사한 것을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들을 脚註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사.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함축된 뜻까지도 이해되도록 各家의 註釋을 참고삼아 敷衍하여 해석하였다.

자.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로 표기하였으며, 脚註는 「1), 2), 3), 4) ·····」의 一連番號로 表記하였고, 較註과정에서 중점적으로 翻譯한 註釋을 「●」로 표시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 方法

本篇을 내용별로 두 章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註釋을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吐를 달았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

### 2. 研究 資料

1) 楊維傑: 黃帝內經譯解(靈樞), 成輔社, 서울, 1980, p.325.

표 1. 校勘 書名 및 略稱

| 番號 | 書 名           |                    | 略稱      |
|----|---------------|--------------------|---------|
| 1  | 黃帝內經<br>靈樞    | 元至元己卯胡氏古林書堂<br>刊本  | 胡本      |
| 2  | 校注語譯          |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br>堂刊本 | 熊本      |
| 3  | /             | 明綉谷書林周日校重刊本        | 周本      |
| 4  | 靈樞經           | 明刻本                | 明本      |
| 5  | 校釋            | 上海涵芬樓影印明道藏本        | 藏本      |
| 6  | 黃帝鍼灸甲乙經       |                    | 甲乙      |
| 7  | 脈經            |                    | 脈經      |
| 8  | 千金要方          |                    | 千金      |
| 9  | 類經            |                    | 類經      |
| 10 | 張馬合編 黃帝內經素問靈樞 |                    | 合編      |
| 11 | 靈樞識           |                    | 靈樞<br>識 |

표 2. 較註 書目 및 略稱

| 番號 | 註釋家   | 時代    | 書目         | 略稱 |
|----|-------|-------|------------|----|
| 1  | 馬蒔    | 明     |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 馬  |
| 2  | 張介賓   | 明     | 類經         | 景岳 |
| 3  | 張志聰   | 清     | 靈樞集注       | 張  |
| 4  | 黃元御   | 1756年 | 靈樞懸解       | 黃  |
| 5  | 丹波元簡  | 1808年 | 靈樞識        | 丹波 |
| 6  | 楊維傑   | 1976年 | 黃帝內經靈樞譯解   | 譯解 |
| 7  | 廓靄春   | 1981年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 語譯 |
| 8  | 河北醫學院 | 1982年 | 靈樞經校釋      | 校釋 |

### III. 本 論

#### 第一章 여러 治法과 病的 可 治・不可治

##### 【原文】

黃帝曰余受九鍼於夫子하고 而私覽於諸方하

니 或有導引行氣와 喬摩灸熨刺焫(1)飲藥之一者1)를 可獨守耶오 將(2)盡行之乎잇가

岐伯이 曰諸方者2)는 衆人之方也요 非一人之所盡行也니이다

黃帝曰此는 乃所謂守一勿失이면 萬物畢者也라 今余已聞陰陽之要3)와 虛實之理와 傾移之過와 可治之屬이어니와 願聞病之變化에 淫傳絶敗而不可治者하노니 可得聞乎잇가

岐伯이 曰要乎哉라 問이여 道는 昭(3)乎其如日醒4)하며 寤(4)乎其如夜瞑하니 能被而服之면 神與俱成하며 畢將服(5)之면 神自得之하리니 生神之理를 可著于竹帛이오 不可傳于子孫이니이다

黃帝曰何謂日醒4)이니잇고

岐伯이 曰明於陰陽하야 如惑之解요 如醉之醒이니이다

黃帝曰 何謂夜瞑이니잇고

岐伯이 曰瘡(6)乎其無聲하며 漠(7)乎其無形하니 折毛發理에 正氣橫傾하고 淫邪泝衍(8)하야 血脈傳溜5)하야 大氣入藏6)하야 腹痛下淫하면 可以致死요 不可以致生이니이다

##### 【校 勘】

- 1) 或有導引行氣喬摩灸熨刺焫飲藥之一者 : 『甲乙』에는 '或有導引行氣按摩灸熨刺焫飲藥一者'로 되어 있다.
- 2) 諸方者 : 『甲乙』에는 '諸人者'로 되어 있다.
- 3) 今余已聞陰陽之要 : 『甲乙』에는 '余已聞陰陽之要'로 되어 있고, 『合編』에는 '今余聞陰陽之要'로 되어 있다.
- 4) 日醒 : 『甲乙』·『胡本』·『周本』·『熊本』·『明本』·『藏本』에는 모두 '旦醒'으로 되어 있는데, 『靈樞識』에서는 '且醒'으로, 『校釋』에서는 '旦醒'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 5) 血脈傳溜 : 『甲乙』에는 '血脈傳留'로 되어 있다.
- 6) 大氣入藏 : 『素問·標本病傳論』新校正에

는 '夫氣入藏'으로 되어 있는데, 『語譯』에서 '夫氣入藏'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字句解】

- (1) 炳 : 불사를 설. 『校釋』에서 "炳은 燒灼한  
다는 뜻이니, 火鍼과 같은 종류의 治法이  
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火鍼이나 溫鍼 等  
을 말한다.
- (2) 將 : 抑也, 문득 장.
- (3) 昭 : 明也, 밝을 소.
- (4) 窘 : 窮迫也, 곤색할 군.
- (5) 服 : 習也, 익힐 복.
- (6) 瘖 : 啞也, 병어리 음.
- (7) 漠 : 寂寞也, 고요할 막.
- (8) 泮衍 : 『校釋』에서 "擴散되고 蔓延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泮 녹을 반, 衍 넘칠  
연.

【校註】

〔1〕 余受九鍼于夫子而私覽於諸方或有導引行  
氣喬摩灸熨刺炳飲藥之一者可獨守耶將盡行之乎  
『譯解』·『校釋』에서 "喬摩는 『甲乙經』에 按  
摩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서는 마땅히 按摩로  
解釋해야 한다. 喬와 蹠는 서로 通하는 글자  
다. 按摩와 喬摩를 論하지 않더라도 모두 이  
것이 氣血을 調暢하고 筋骨을 柔和시킴을 위  
주로 하는 按摩療法임을 지적한 것이다. 炳은  
뜸이 댈이고 본래 熱로 고쳐야 하는데, 燒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火鍼이나 혹은 鍼 끝에  
燒灼하는 등의 治療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導引行氣는 氣功 治療法이다.<sup>2)</sup>"고 하였다.

2) 譯解: 喬摩는 甲乙經에 作按摩니 此處는 亦  
當做按摩解라. 喬與蹠通이라 因此로 不論是按摩  
或喬摩라도 都是指以調暢氣血과 柔和筋骨爲主  
의按摩療法이라 炳은 音啞이오 本作熱이니 是  
燒의意思라 這裏는 是指火鍼或燒鍼尾等療法而  
言이라 ○ 校釋: 導引行氣는 卽氣功療法이라  
喬摩는 卽按摩療法이라

〔2〕 諸方者衆人之方也非一人之所盡行也

馬·景岳·張은 "이것은 여러 治方이 病  
에 行할 것이지 한 사람에게 行할 것이 아니  
나, 하나를 지키면 만 가지를 거느릴 수 있음  
을 말한 것이다. 諸方은 혹 導引行氣·蹠足·  
按摩·뜸·熨·刺鍼·炳하거나 혹은 藥을 마  
시는 것들이니, 醫者가 홀로 한 法을 지켜 行  
할 것이지 또한 다 알아 行할 것이겠는가? 岐  
伯이 말한 諸方은 여러 사람의 病을 다스릴  
바요, 病이 같지 아니하므로 다스림에도 또한  
다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 사람의  
病에 다 쓰겠는가?"<sup>3)</sup>라고 하였고, 黃은 "衆人  
之方非一人之所盡行은 衆人에 각기 잘하는 바  
가 있음이요, 한 사람이 능히 다 쓸 바가 아  
님을 말한 것이다."<sup>4)</sup>고 하였다.

〔3〕 此乃所謂守一勿失萬物畢者也

馬·景岳·張·黃·『校釋』에서 "이 章은 사  
람이 病傳에 淺深이 있음을 알아야 함을 가르  
친 것이니, 가령 可治之屬은 곧 하나를 지켜  
잃지 않아야 큰 邪氣가 臟에 들어와 救하지

3) 馬: 此는 言諸方이 可行于衆病이오 非行于  
一人이나 然이나 守一可以御萬也라 諸方者는  
或導引行氣或蹠足或按摩或用灸或用熨或用刺或  
用炳或飲藥이니 爲醫工者가 可獨守一法而行之  
요 抑亦盡識而行之야 伯言諸方者는 所以治衆人  
之病이오 病有不同 故로 治之亦異也니 豈必于  
一人之病而盡用之哉아 ○ 景岳: 謂當因人所宜  
以施治니 是衆人各有其方也라 ○ 張: 此篇은  
論人之身體에 有形層之淺深과 有血氣之虛實하  
니 是以로 鍼砭藥灸는 各守其一이오 非一人之  
所盡行也라 病傳者는 謂邪從皮毛而發于腠理하  
고 從腠理而入于經脈하고 從經脈而傳留于五藏  
이라 所謂經絡受邪入藏府가 爲內所因也라 如邪  
入于藏에 不可以致生이라 故로 邪在皮毛者는  
宜砭而去之요 在于脈肉筋骨者는 宜鍼而瀉之요  
邪入于中者는 宜導引行氣以出之요 寒邪之入深  
者는 宜熨而通之요 邪在內而虛者는 止可飲以甘  
藥이니 實者는 可用毒藥以攻之요 陷于下者는  
宜灸宜啓之라 是以로 藥石灸刺導引諸方은 隨衆  
人之所病而施之요 非一人之所盡行者也라

4) 黃: 衆人之方非一人之所盡行은 言衆人各有  
所長이오 非一人之所能盡用也라

못하는 症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萬物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는 功이 여기에서 다 막히게 된다.<sup>5)</sup>”고 하였다.

〔4〕 今余已聞陰陽之要虛實之理傾移之過可治之屬願聞病之變化淫傳絕敗而不可治者可得聞乎

馬·景岳·張·『語譯』·『校釋』에서 “이것은 形과 神이 다 病들면 (邪氣가) 腠理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와 血脈으로 流傳하여 治療하지 못하는 死證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음을 論한 것이다. 陰陽의 樞要是 皮膚肌腠는 陽이요 血脈은 陰인 것이다. 肌腠는 三焦가 疏通·會合하고 元氣·眞氣가 出入하는 곳이다. 血脈은 神氣가 간직된 곳이다. 虛實은 血氣의 虛實이다. 腠理가 固密하고 元氣·眞氣가 通暢하면 血脈이 調和로워져 精神이 안에서 지키니 邪氣가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虛해지면 傳하고 머물러 臟으로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生神하는 이치를 竹帛에 著述하여 後世를 教化해야지 사사로이 子孫에게 傳해서는 안되니, 대개 이 神氣를 調養하는 것은 곧 스스로 몸을 닦는 功을 말한 것이다. 傾移之過는 毛髮이 구부러지고 腠理가 開發됨에 正氣가 橫傾한 것이요, 可治之屬은 邪氣가 여전히 皮膚와 肌腠의 사이에 있고 血脈에 傳流하여 大邪가 臟에 들어감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邪氣가 밖

에 있으면 오히려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를 지켜 잃지 아니하면 邪氣가 안으로 들어가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잘 다스리는 者は 皮毛를 다스리고 다음에는 肌肉을 다스리고 다음에는 經脈을 다스리고 다음에는 五藏을 다스리는데 五臟을 다스리는 경우는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산다고 한 것이다. 대개 間傳하는 경우는 살고, (病을) 所勝으로 傳하는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 可治之屬은 치료할 수 있는 機會를 말한 것이다. 『呂氏春秋·順民』高誘注에 ‘屬은 會다.’고 했다.<sup>6)</sup>”고 하였다.

〔5〕 要乎哉問道昭乎其如日醒寤乎其如夜瞑能被而服之神與俱成畢將服之神自得之生神之理可著于竹帛不可傳于子孫

馬·景岳·張·黃은 “昭乎如醒은 道の 밝음

6) 馬: 此는 言守一之旨가 在于守道以生神 故로 明暗異狀而大病當知也라 帝問病有陰陽虛實과 及傾移之過와 可治之屬하니 余皆聞之라 然이나 有變化不測하고 浸淫相傳하야 以至于絶敗而不可治者는 乃余之未聞也라 是帝本以大病難知로 爲疑어늘 而伯乃以上文守一之旨로 爲答이라 ○ 景岳: 淫邪傳變하면 未必卽危로대 正氣絶敗하면 則不可治矣라 ● 張: 此는 論形與神이 俱病則無由入其腠理라도 不致血脈流傳하야 而成不救之死證也라 陰陽之要者는 皮膚肌腠爲陽이요 血脈爲陰이라 肌腠者는 三焦通會元眞之處라 血脈者는 神氣之所藏也라 虛實者는 血氣之虛實也라 如腠理固密하고 元眞通暢하면 血脈和調하야 精神內守하니 邪氣何由內入하리오 虛則傳溜入藏하야 而不可以致生이라 是以로 生神之理를 可著于竹帛하야 以教化後世요 不可傳于子孫하니 蓋言調養此神氣者는 乃自修之功也라 傾移之過者는 折毛發理에 正氣橫傾也라 可治之屬者는 邪尙在于皮膚肌腠之間하고 未至血脈傳流하야 大邪入藏也라 此는 言邪在于外하면 猶爲可治之屬이라 守一勿失하면 不使邪溜于內라 故로 善治者는 治皮毛하고 其次治肌肉하고 其次治經脈하고 其次治五藏하니 治五藏者는 半死半生이라 蓋問傳者는 生하고 傳之于其所勝者는 不治也라 ○ 語譯: 可治之屬은 猶云可治의機會라 呂氏春秋順民高誘注에 屬은 會也라하니 機會는 聯綿字라 ○ 校釋: 可治之屬은 卽治療疾病의適當方法이라

5) 馬: 故로 帝悟諸方이 雖行于衆病이나 而醫工이 當知乎守一이라 守一者는 合諸方而盡明之하되 各守其一而勿失也라 庶于萬物之病이 可以畢治而無誤矣라 然이나 守一之理를 帝能言之하되 而其要는 在於生神이니 妙哉라 神之爲一也여 ○ 景岳: 人得其一하면 則萬變之道可畢矣라 移精變氣論에 曰治之極於一이라하니 卽此謂也라 ● 張: 此章은 教人知病傳之有淺深이니 如可治之屬은 卽守一勿失하야 不使大邪入藏而成不救니 利濟萬物之功이 畢于此矣라 ○ 黃: 守一勿失하면 則殊途同歸 故로 萬物畢이라 ○ 校釋: 守一勿失萬物畢者也 指醫生이 從各種療法中總結出治療的原則하야 堅持下去하야 各種疾病을 就都會得到最適當의治療了라

이요, 窅乎如瞑은 (病을) 살핍의 어려움이다. 竹帛에 저술하면 은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子孫에게 傳하면 道를 자기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므로 불가한 것이다. 畢은 終이다. 服은 習이다. 오래도록 익히므로 神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生神之理可著於竹帛不可傳於子孫은 淫傳絶敗의 뜻이니 지극히 드러나고 지극히 어렵게 됨을 말한 것이다.<sup>7)</sup>”고 하였고, 『譯解』에서 “被는 피동의 뜻이 있으니, 바로 接受의 뜻이다. 服은 信服한다는 뜻이다.<sup>8)</sup>”고 하였고, 『語譯』에서 “被服은 몸에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이 항시 떨어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漢書·河間獻王德傳』王先謙補注에 ‘被服은 儒術을 몸에 입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곧 醫道를 몸에 입음을 말한 것이다. 將은 當과 같다.<sup>9)</sup>”고 하였다.

〔6〕何謂日醒明於陰陽如惑之解如醉之醒

7) 馬: 遂嘆道之有要하니 明者爲醒이요 而暗者爲瞑이니 果能佩而服之하면 則神自生而與法俱得이라 然이나 此生神之理를 可著於竹帛하야 以傳之天下後世하니 蓋上達은 必由心悟니 可以待其人而後行也요 雖子孫이나 亦不可傳之니 猶梓匠輪輿는 能使人規矩하고 不能使人巧 故로 父不得以私諸子也라 ● 景岳: 昭乎如醒은 道之明也요 窅乎如瞑은 察之難也라 著之竹帛하면 則澤及於人하고 傳之子孫하면 則道私於己 故로 不可也라 ○ 張: 明于陰陽하야 如惑之解요 如醉之醒이니 畢將服之면 神自得之라 所謂上古之人이 其知道者는 法于陰陽하고 和于術數하야 食飲有節하고 起居有常하야 不妄作勞라 故로 能形與神이 俱而盡終其天年이라하니라 故로 可著於竹帛은 蓋欲使天下後世와 子孫黎民으로 咸知此養生之道焉이라 ○ 黃: 道之光明이 昭乎其如日醒하고 道之幽微가 窅乎其如夜瞑이라 畢은 終也라 服은 習也라 習服之久 故로 神自得之라 生神之理可著於竹帛不可傳於子孫은 言淫傳絶敗之義니 至顯而至晦也라

8) 譯解: 被는 有被動的含義니 卽接受의 意思라 服은 是信服地去做의 意思라

9) 語譯: 被服은 謂如被服之著于身하야 時不能離라 漢書河間獻王德傳王先謙補注에 被服者는 言以儒術衣被其身이라하니 此則謂以醫道衣被其身이라 將은 猶當也라

馬·黃은 “무릇 道에 밝은 것이 의혹이 풀림과 같고 취함에서 깨와 같으니, 이것이 日醒과 같이 밝음을 말한 것이다.<sup>10)</sup>”고 하였다.

〔7〕何謂夜瞑痛乎其無聲漠乎其無形折毛發理正氣橫傾淫邪泮衍血脈傳溜大氣入藏腹痛下淫可以致死不可以致生

馬·景岳·張·黃은 “만일 病의 變化가 浸淫되고 傳해지며 끊어지고 무너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곧 淫邪가 擴散되고 蔓衍되어 血脈에 流傳하여 大氣가 臟에 들어오면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痞塞하여 소리가 없으며 망막하여 형체가 없으니, 道를 알지 못하는 者는 皮膚와 腠理가 비며 성기고 血脈이 虛脫함을 말한 것이다. 虛邪가 사람에 들어오에 隱微하여 그 情況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점점 淫邪가 臟에 들어가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邪氣가 사람에 적중됨에 皮毛에서 시작하면 毛髮이 구부러지며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邪氣가 毛髮로부터 들어오고 들어오면 깊이 이르러 腠理에서 들어오는데, 腠理는 三焦가 疏通·會合하고 元氣·眞氣가 出入하는 곳이니, 이로써 正氣가 橫傾하고 淫邪가 肌腠의 사이에서 擴散되고 蔓衍되면 血脈에 傳流하여 안으로 臟에 들어간다. 대개 經脈이 안으로 臟腑에 屬하고 밖으로 몸에 연락되니, 이로써 經脈이 邪氣를 받아 臟腑에 들어간 것이 안에서 所因한 까닭이다. 淫邪가 肌腠에 泮衍되면 傷氣하고 血脈에 傳流하여 臟에 들어가면 傷神하니, 神氣가 더불어 傷하기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하는 것이다.<sup>11)</sup>”고 하였고, 『譯解』·『校釋』에서 “淫邪는

10) 馬: 凡明此道者는 如惑之解요 如醉之醒이니 是謂昭乎如日醒也라 ○ 黃: 日醒者는 哲인이 明於陰陽하야 如惑之解요 如醉之醒也라

11) 馬: 昧此道者는 如病之瘡이 無聲難聞이요 如雲之漠이 無形可據니 是謂窅乎其如夜瞑也라 何也요 凡病之變化에 淫傳絶敗而不可治者는 其毫毛折하고 腠理開하야 正氣橫傾하고 邪氣泮衍하야 大邪入藏而腹痛下傳하야 誠有易死難生者

偏勝한 病邪다. 泮은 散의 뜻이다. 衍은 充滿하고 차고 넘쳐 이로 인하여 蔓延되거나 혹은 蕃衍된다는 뜻이다. 淫邪泮衍은 病邪가 온몸에 흩어져 蔓延됨을 가리킨 것이다. 大氣는 宇宙의 큰 邪氣니, 또한 외계의 風寒暑濕燥火 등의 六淫邪氣를 가리킨 것이다. 入臟은 이러한 종류의 邪氣가 內臟으로 深入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淫은 亂의 뜻으로 글자를 풀어야 한다. 下淫은 下焦의 正氣가 逆亂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sup>12)</sup>”고 하였고, 『語譯』에서 “漢은 安靜을 말한 것이다. 『莊子·應帝王』에 ‘合氣于漢’이라 했고, 注에 ‘漠然靜于性而止’고 했다. 孫鼎宜가 ‘折은 漸이라 읽어야 한다. 처음 病을 얻으면 毫毛가 漸漸然하면서 충고 膜

하니 非有守一之神이면 烏能治若病哉리오 ○ 景岳: 大氣는 大邪之氣也라 凡邪之中人에 瘡乎其無聲하야 不可得而聞也요 漢乎氣無形하야 不可得而見也라 至其絕敗하면 則爲折毛發理와 正氣橫傾等證 故로 有死無生也라 ● 張: 若夫病之變化가 淫傳絕敗而不可治者는 乃淫邪泮衍하야 血脈流傳하야 大氣入藏하면 不可以致生也라 瘡乎其無聲하야 漢乎其無形하니 謂不知道者는 膚膜空疎하고 血脈虛脫이라 虛邪之中人에도 微莫知其情하고 莫見其形하야 漸致淫邪入藏하야 不可以致生이라 夫邪之中于人에도 始于皮毛하면 則毛髮折而腠理開하고 開則邪從毛髮入하고 入則抵深而入于腠理라 腠理者는 三焦通會元真之處니 是以로 正氣橫傾하고 淫邪泮衍于肌腠之間하면 則傳流于血脈而入于藏矣라 蓋經脈이 內屬于藏府하고 外絡于形身하니 是以로 經脈受邪入藏府는 爲內所因也라 淫邪泮衍于肌腠하면 則傷氣하고 傳流于血脈而入藏하면 則傷神하니 神氣並傷 故로 可以致死而不可以致生이라 ○ 黃: 夜暝者는 不知陰陽하고 失於保護하야 邪之中人에 瘡而無聲하야 漢而無形하니 折毫毛而發腠理에 正氣橫傾하고 淫邪泮渙游衍하야 血脈傳溜不停하야 大氣入藏하야 腹痛下淫하면 可以致死요 不可致生也라

12) 譯解: 淫邪는 就是偏勝의 病邪라 泮은 是散의 意思라 衍은 是充滿盈溢하야 因而蔓延或蕃衍의 意思라 淫邪泮衍은 是指病邪散在地蔓延於全身이라 大氣는 卽宇宙의 大邪之氣니 也就是指外界風寒暑濕燥火等六淫邪氣라 入臟은 指此種邪氣深入內臟而言이라 淫은 作亂字解니 下淫은 指下焦의 正氣逆亂而言이라 ○ 校釋: 泮衍은 擴散이요 蔓延이라

理가 또한 發泄한다.’고 했다. 橫傾은 恣盡이니, 수시로 耗散됨을 말하는 것이다. 『漢書·田蚡傳』 顏注에 ‘橫은 恣다.’고 했고, 『文選·孫子荊征西官屬詩』 善注에 ‘傾은 盡과 같다.’고 했다. 『詩·匏有苦葉』 傳에 ‘泮은 散이다.’고 했고, 『詩·板』 傳에 ‘衍은 溢이다.’고 했으니, 淫邪泮衍은 淫邪가 肌腠의 사이에서 散溢됨을 말하는 것이다. 淫은 浸淫함이요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釋名·釋名語』에 ‘淫은 浸이니, 浸淫은 두루 널리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sup>13)</sup>”고 하였다.

### 【考 察】

#### 〔校勘에 對한 考察〕

1. ‘日醒’에 대하여 『靈樞識』에서는 ‘旦醒’으로, 『校釋』에서는 ‘旦醒’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日’과 ‘旦’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旦’는 어느 版本에 근거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日’은 下文의 ‘夜’字와 서로 호응이 되므로 原文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大氣入藏’에 대하여 『語譯』에서 ‘夫氣入藏’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語譯』과 같이 고치면 ‘氣’의 意味가 명확하지 않으며 下文에 邪氣가 들어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큰 不正한 邪氣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文意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較註에 對한 考察〕

13) 語譯: 漢은 謂安靜이라 莊子應帝王에 合氣于漢이라하고 注에 漠然靜于性而止라하니라 孫鼎宜曰 折은 讀曰漸이라 始得病則毫毛漸漸然寒而腠理亦發泄也라하니라 橫傾은 恣盡이니 猶言隨時耗散이라 漢書田蚡傳顏注에 橫은 恣也라하고 文選孫子荊征西官屬詩善注에 傾은 猶盡也라하니라 詩匏有苦葉傳에 泮은 散也라하고 詩板傳에 衍은 溢也라하니 淫邪泮衍은 是謂淫邪散溢于肌腠之間이라 淫은 浸淫이요 漸進이라 釋名釋名語에 淫은 浸也니 浸淫은 旁入之言也라하니라

1. '諸方者衆人之方也非一人之所盡行也'에 대하여 景岳 등은 모두 病이 서로 다르므로 그에 맞는 治療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黃은 사람마다 각기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여기서는 景岳과 같이 그에 맞는 치료법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文意上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2. '被而服之'에 대하여 黃은 服을 習의 뜻으로, 『譯解』에서는 接受와 信服으로, 『語譯』에서는 衣被(의복과 침구, 감싸고 보호하다)의 뜻으로 보았는데, 세 가지 說이 의미에 있어 서로 비슷하나 文意上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익히고 익힌다는 뜻으로 종합하여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3. '下淫'에 대하여 『譯解』에서 正氣가 下焦에서 逆亂된 것이라고 했는데, 邪氣가 內臟에 들어오면 正氣가 弱하여 아래로 下降치 못하여 邪氣가 下焦에서 擴散되고 蔓延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九鍼에 대하여 夫子께 수업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여러 方書를 열람하였는데, 혹 導引行氣와 按摩·灸·熨·刺·熨과 飲藥 등의 방법 중에 한 가지만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모두 施行해야 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여러가지 治方은 많은 사람들의 방편이지, 한 사람이 모두 施行하는 것이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곧 이른바 하나를 지켜 잃지 아니하면 萬物을 다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미 陰陽의 요점과 虛實의 이치와 傾移의 허물과 치료할 수 있는 部類에 대하여 들었지만, 病의 變化에 淫邪가 傳變하여 正氣가 敗絶하여 치료할 수 없는 경우를 듣고 싶은데,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緊要하시도다! 물음이어! 道는 밝음이 낮의 빛남과 같고, 궁색함이 밤의 어두움과 같으니, 능히 익힌다면 神이 이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며 마치도록 장차 익힌다면 神妙함이 저절로 얻어질 것이니, 神明을 生하는 이치를 가히 竹帛에 저술할 것이지(사사로이) 子孫에게 傳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黃帝 가라사대 무엇을 일러 日醒이라 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陰陽에 밝아서 의혹이 풀림과 같고 취함이 깎과 같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일러 夜瞑이라 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병어리같이 소리가 없으며 망막하여 형체가 없으니, 털이 구부러지고 腠理가 開發됨에 正氣가 기울고 淫邪는 넘쳐서 血脈에 傳溜하여 邪氣가 臟에 들어가 腹痛이 있고 下焦에 邪氣가 쌓이면 죽음에 이르고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 第二章. 五臟病傳의 次序와 死期

#### 【原文】

黃帝曰大氣入藏<sup>1)</sup>은奈何

岐伯이 曰病先發于心하면 一日而之肺하고 三日而之肝하고 五日而之脾<sup>2)</sup>하니 三日不已면 死호대 冬夜半이오 夏日中이라 病先發于肺하면 三日而之肝하고 一日而之脾하고 五日而之胃<sup>3)</sup>하고 十日不已면 死호대 冬日入이오 夏日出이라 病先發于肝하면 三日而之脾하고 五日而之胃하고 三日而之腎하니 三日不已면 死호대 冬日入이오 夏蚤<sup>1)</sup>食<sup>4)</sup>이라 病先發于脾하면 一日而之胃하고 二日而之腎하고 三日而之膂<sup>2)</sup>膀<sup>5)</sup>하니 十日不已면 死호대 冬人定이오 夏晏<sup>3)</sup>食이라 病先發于胃하면 五日而

之腎하고 三日而之膻膀胱하고 五日而上之心하니 二日不已면 死호대 冬夜半(6)이오 夏日昧(4)이라 病先發于腎하면 三日而之膻膀胱하고 三日而上之心하고 三日而之小腸하니 三日不已면 死호대 冬大晨(5)이오 夏早晡(7)(6)라 病先發于膀胱하면 五日而之腎하고 一日而之小腸하고 一日而之心하니 二日不已면 死호대 冬鷄鳴이오 夏下晡(8)라 諸病에 以次相傳이 如是者는 皆有死期하니 不可刺也요 間一藏(7)及二三四藏者(9)는 乃可刺니이다

## 【校勘】

- 1) 大氣入藏 : 『語譯』에서 '夫氣入藏'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 2) 病先發于心一日而之肺三日而之肝五日而之脾 : 『甲乙』에는 '病先發于心心痛一日之肺而咳三日之肝脇支滿五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으로, 『脈經』에는 '病先發于心者心痛一日之肺喘咳三日之肝脇痛支滿五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으로, 『千金』에는 '病先發於心者心痛一日之肺喘咳三日之肝脇痛支滿五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으로 되어 있다.
- 3) 病先發于肺三日而之肝一日而之脾五日而之胃 : 『甲乙』에는 '病先發于肺喘咳三日之肝脇支滿一日之脾而身體痛五日之胃而脹'으로 되어 있고, 『脈經』에는 '病先發于肺喘咳三日之肝脇痛支滿一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五日之胃腹脹'으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病先發於肺喘咳三日之肝脇痛支滿一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五日之胃腹脹'으로 되어 있다.
- 4) 病先發于肝三日而之脾五日而之胃三日而之腎三日不已死冬日入夏蚤食 : 『甲乙』에는 '病先發于肝頭痛目眩脇多滿一日之脾而身體痛五日之胃而腹脹三日之腎腰脊少腹痛胛痠三日不已死冬日中夏早食'으로, 『脈經』·『千金』에는 모두 '病先發于肝者頭目眩脇痛支滿一日之脾閉塞不通身體重二日之胃而腹脹三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十日不已死冬日入夏早食'으로 되어 있다.
- 5) 病先發于脾一日而之胃二日而之腎三日而之膻膀胱 : 『甲乙』에는 '病先發于脾身痛體重一日之胃而脹二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로, 『脈經』·『千金』에는 모두 '病先發于脾閉塞不通身痛體重一日之胃而腹脹二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로 되어 있다.
- 6) 病先發于胃五日而之腎三日而之膻膀胱五日而上之心二日不已死冬夜半 : 『甲乙』에는 '病先發于胃脹滿五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五日上之脾閉塞不通身痛體重六日不已死冬夜半後'로, 『千金』에는 '病先發於胃脹滿五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五日上之心脾心痛閉塞不通身痛體重三日不已死冬夜半後'로 되어 있다.
- 7) 病先發于腎三日而之膻膀胱三日而上之心三日而之小腸三日不已死冬大晨夏早晡 : 『甲乙』에는 '病先發于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三日而上至心心痛三日之小腸兩脇支痛三日不已死冬大晨夏晏晡'로, 『脈經』에는 '病先發于腎少腹腰脊痛胛痠三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二日上之心心痛三日之小腸脹四日不已死冬大晨夏晏晡'로, 『千金』에는 '病先發於腎少腹腰脊痛胛痠一日之膀胱背脊筋痛小便閉二日上之心心痛三日之小腸脹四日不已死冬大晨夏晏晡'로, 『類經』에는 '病先發于腎三日而之膻膀胱三日而上之心三日而之小腸三日不已死冬大晨夏晏晡'로 되어 있다.
- 8) 病先發于膀胱五日而之腎一日而之小腸一日而之心 : 『甲乙』에는 '病先發于膀胱小便閉五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一日之小腸而腸脹二日之脾而身體痛'으로, 『脈經』·『千金』에는 모두 '病先發于膀胱者背脊筋痛小便閉五日之腎少腹腰脊痛胛痠一日之小腸脹一日之脾閉塞

不通身痛體重'으로 되어 있다.

- 9) 問一藏及二三四藏者乃可刺 : 『甲乙』에는 이 글자들이 없다.

#### 【字句解】

- (1) 蚤 : 早也, 이를 조.
- (2) 膂 : 脊也, 등골뼈 러.
- (3) 晏 : 晚也, 늦을 안.
- (4) 眚 : 災也, 해가올어질 질.
- (5) 晨 : 早也, 새벽 신.
- (6) 哺 : 申時也, 신시 포.
- (7) 問一臟 : 『譯解』에 “한 臟器의 간격으로 서로 傳變하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 【較註】

〔1〕病先發于心一日而之肺三日而之肝五日而之脾三日不已死冬夜半夏日中

馬·景岳·張·黃·『譯解』·『語譯』에서 “病이 心에서 發하여 肺로 傳함은 火가 金을 乘한 것이다. 三일에 金이 다시 木을 乘하므로 肝으로 傳하는 것이요, 五일에 木이 다시 土를 乘하므로 脾로 傳하는 것이다. 다시 三일에 邪氣가 물러나지 않아 (病이) 甚해지면 죽게 되는데, 겨울의 夜半은 水가 旺盛함의 極致요 여름의 日中은 火가 旺盛함의 極致니, 心火가 水를 두려워하므로 겨울에는 夜半에 죽고 陽邪가 亢極하므로 여름에는 日中에 죽는 것이다. 대개 衰함이 極해도 또한 죽고 盛함이 極해도 또한 죽으니, 偏勝한 바가 있으면 곧 偏絶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五行의 氣가 다 그렇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아래 문장의 뜻은 다 이를 본받는다.”<sup>14)</sup>고 하였다.

14) 馬: 按素問標本病傳論에 云夫病傳者是 心病은 先心痛하니 一日而效하고 三日脇支痛하고 五日閉塞不通하며 身體重하니 三日不已면 死호데 冬夜半이요 夏日中이라하니라 此는 承上文而言大氣入藏者는 卽五藏之相剋爲傳이니 遂以心之病傳者로 而先言之也라 大氣入藏者는 卽素

〔2〕病先發于肺三日而之肝一日而之脾五日而之胃十日不已死冬日入夏日出

馬·黃·『譯解』·『語譯』에서 “『標本病傳論』에 ‘肺病은 喘咳하니 3일에 옆구리가 그득 차며 아프고 1일에 몸이 무거우며 아프고 5일에

問標本病傳論之所謂病傳也라 夫病傳者는 病若先發于心하면 其證이 先心痛하니 以藏眞通于心也라 故로 火來勝金하야 一日에 卽傳之於肺하면 其證이 當爲欬하니 以肺之變動爲欬也라 又三日則四日矣요 金來勝木하야 傳之于肝하면 其證이 當脇支痛하니 以肝脈循脇肋也라 又五日則九日矣요 木來勝土하야 傳之于脾하면 其證이 當閉塞不通하며 身體重하니 以脾主肉而肉重也라 又三日則十二日矣요 其病不已則死호데 但冬屬水 而冬之夜半은 其水尤勝하야 惟水克火故로 冬死于夜半이요 夏屬火 而夏之日中은 其火尤勝하야 今心火已絶하고 火不能持 故로 夏死于日中也라 ● 景岳: 病發於心而傳於肺은 火乘金也라 三日而金復乘木 故로 傳之肝也요 五日而木復乘土 故로 傳之脾也라 再三日而邪氣不退하야 其甚則死하니 冬月夜半은 水王之極也요 夏日中은 火王之極也니 心火畏水 故로 冬則死于夜半이요 陽邪亢極 故로 夏則死于日中이라 蓋衰極亦死하고 盛極亦死하니 有所偏勝하면 則有所偏絶也라 五行之氣가 無不皆然이라 下文之義는 皆放此라 ○ 張: 此는 論大邪入藏하야 傳于其所不勝而死라 蓋五藏은 乘五方五行之氣而生 故로 生于相生而死于相勝也라 病先發于心하면 一日而傳之肺하고 三日而傳之肝하고 五日而傳之脾하니 皆逆傳其所不勝하야 再至三日不已而死라 夫心爲火藏이요 冬主水하고 夏主火하니 冬夜半者는 水勝而火滅也요 夏日中者는 火極而自焚也라 楊元如曰 按진대 素問玉機眞藏論에 病入于五藏하면 逆傳于所勝이라하니 尙可按可浴可藥可灸하야 以救之 故로 日三日不已死는 謂邪入于藏에 猶有可已之生機라 故로 首言導引行氣喬摩灸熨刺熨飲藥하되 末言諸病以次相傳者皆有死期요 不可刺也라 蓋邪在于形層者宜刺와 入于藏者止可按摩飲藥以救之라 聖人救民之心은 無所不用其極이라하니라 ○ 黃: 冬夜半은 水旺火敗也요 夏日中은 火勝無制也라 ○ 譯解: 冬屬水하니 夜半은 是陰氣最盛之時로 水能克火하니 所以認爲病先生於心的在冬季의 夜半에 更會使心火衰竭而死라 夏屬火하니 日中은 爲陽氣最盛的時候로 所以認爲病先生於心的在夏季의 日中에 會使陽邪亢盛而死라 ○ 語譯: 冬夜半은 冬屬水하니 夜半은 是陰氣最盛之時로 水能克火 故로 心火衰竭而死라 夏日中은 夏屬火하니 日中은 是陽氣最盛之時 故로 陽邪過亢而死라

脹滿하고 10일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겨울에는 日入이요 여름에는 日出이다.'고 했다. 이것은 邪氣가 肺에 들어가 相傳하여 죽는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病이 먼저 肺에서 發하면 마땅히 喘咳하고 3일을 지나면 金이 木을 乘하여 肝에 傳하면 마땅히 脇支가 그득 차며 아프게 된다. 또한 1일은 곧 4일이니, 木이 土를 乘하여 脾에 傳하면 마땅히 몸이 무겁고 아프게 된다. 또한 5일은 곧 9일이니, 脾邪가 胃를 乘하면 마땅히 脹滿하게 된다. 또한 10일은 곧 19일이니, 그 病이 낫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겨울의 日入은 申에 있어 때가 비록 金에 屬하나 金이 衰하여 돕지 못하므로 겨울에는 日入에 죽는 것이요, 여름의 日出은 寅시에 있어 木이 旺하고 火가 生하여 肺氣가 이미 敗絶하니 火가 盛하지 않더라도 죽게 되므로 여름에는 日出에 죽는다.<sup>15)</sup>고 하였고, 景岳은 “肺로부터 肝으로 가는 것과 肝으로부터 脾로 가는 것은 다 所勝으로 傳하는 것이요, 脾로부터 胃로 가는 것은 表裏가 相傳한 것이다. 肺邪가 申酉에서 旺盛하므로 겨울에는 日入에 죽고, 金氣가 寅卯에서 敗絶하므로 여름에는 日出에 죽는

다.<sup>16)</sup>”고 하였고, 張은 “楊元如가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日出에 氣가 비로소 隆盛해지고 日入에 氣가 收引된다. 겨울의 日入은 氣가 들어가 안에서 끊어지고 여름의 日出은 氣가 나와 밖에서 끊어진다.’고 했다. 살펴보건대 단지 겨울과 여름만 말하고 봄과 가을은 말하지 않은 것은 四時의 氣가 모두 寒暑의 왕래에 屬하고 夜半과 日中은 陰陽이 子午로 나뉘어진 것이요, 日出과 日入은 陰陽이 卯酉로 分離됐기 때문이다. 病傳의 1·3·5일은 곧 하늘의 奇數다. 대개 五臟이 땅의 五行에서 생기고 天干의 變化하는 바를 본받아 그런 것이다.<sup>17)</sup>”고 하였고, 丹波는 “病傳하는 日數는 어떤 뜻에서 根源하였는지 상세하지 아니하니, 楊元如의 說은 뜻이 通하기 어렵다.<sup>18)</sup>”고 하였다.

〔3〕病先發于肝三日而之脾五日而之胃三日而之腎三日不已死冬日入夏蚤食

馬·景岳·張·黃·『譯解』·『語譯』에서 “『標本病傳論』에 ‘肝病은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옆구리가 그득 차니 3일에 몸이 무거우며 아프고 5일에 脹滿하고 3일에 腰脊과 小腹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리고 3일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겨울에는 日入이요 여름에는 早食이다.’고 했다. 蚤는 마땅히 早로 해야 한다.

15) 馬: 標本病傳論에 云肺病은 喘欬하니 三日而脇支滿痛하고 一日에 身重體痛하고 五日而脹하고 十日不已면 死하니 冬日入이요 夏日出이라하니라 此는 言邪氣入肺하여 而有相傳之死期也라 病先發于肺하면 其證이 當爲喘爲欬요 過三日則金來乘木하여 傳之於肝하면 其證이 當脇支滿痛이라 又一日則四日矣니 木來乘土하여 傳之于脾하면 其證이 當身重體痛이라 又五日則九日矣니 脾邪乘胃하면 其證이 當爲脹이라 又十日則十九日矣니 其病不已則死라 但冬之日入은 在申하야 時雖屬金이나 金衰不能扶也 故로 冬死于日入이요 夏之日出은 在寅하야 木旺火生하야 肺氣已絶하니 非火盛而死 故로 夏死于日出也라 ○ 黃: 冬日入은 金旺水生也요 夏日出은 木旺生火也라 ○ 譯解: 日入은 指下午三時至五時라 日出은 指晨前三時至七時라 ○ 語譯: 冬日入은 屬申時하야 金衰已甚 故로 冬死于日入이라 夏日出은 屬寅時하야 木旺火生하야 肺氣已絶 故로 夏死于日出이라

16) 景岳: 自肺而肝과 自肝而脾는 皆傳所勝也요 自脾而胃는 表裏相傳也라 肺邪王於申酉 故로 冬則死於日入하고 金氣絶於寅卯 故로 夏則死於日出이라

17) 張: 楊元如曰 肺主氣하니 日出而氣始隆하고 日入而氣收引이라 冬日入者는 氣入而絶于內也요 夏日出者는 氣出而絶于外也라하니라 按컨대 止言冬夏而不言春秋者는 四時之氣가 總屬寒暑之往來하고 夜半日中은 陰陽之分于子午也요 日出日入은 陰陽之離于卯酉也일새라 病傳之一三五日者는 乃天之奇數라 蓋五臟이 生于地之五行而本于天干之所化라

18) 丹波: 病傳日數는 未詳本于何義니 楊說難通이라

이것은 邪氣가 肝에 들어가 相傳하여 죽는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病이 먼저 肝에서 發하면 마땅히 머리와 눈이 어지러우며 옆구리가 그득 차게 된다. 3일을 지나면 木이 土를 乘하여 脾에 傳하면 마땅히 몸이 무겁고 아프게 된다. 또한 5일은 곧 8일이니, 脾가 胃府에 (病을) 傳하면 마땅히 脹滿한다. 또한 3일은 곧 11일이니, 바로 土가 水를 乘하여 腎에 傳하면 마땅히 腰脊과 小腹이 다 아프며 정강이에서 시림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腎脈이 다리에서 일어나 장딴지를 따라 오금 안쪽으로 나와 척추를 지나 腎에 屬하며 膀胱에 絡하고 또한 허리는 腎의 府이기 때문에 病들면 이와 같이 된다. 또한 3일은 곧 14일이니, 病이 낫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겨울의 日入은 申時에 있어 金이 왕성하고 木이 衰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日入에 죽는 것이요, 여름의 早食은 卯時에 있어 木이 왕성하지만 또한 돕지 못하므로 여름에는 早食에 죽는 것이다.<sup>19)</sup>고 하였다.

19) 馬: 標本病傳論에 云肝病은 頭目眩하고 脇支滿하니 三日에 體重身痛하고 五日而脹하고 三日에 腰脊小腹脛痠하고 三日不已면 死하니 冬日入이오 夏早食이라하니라 蜚는 當從早라 此는 言邪氣入肝하야 而有相傳之死期也라 病先發于肝하면 其證이 當頭目眩而脇支滿이라 過三日則木來乘土하야 傳之于脾하면 其證이 當體重身痛이라 又五日則八日矣니 脾傳于胃府하면 其證이 當爲脹이라 又三日則十一日矣니 則土來乘水하야 傳之于腎하면 其證이 當腰脊小腹俱痛하며 脛中覺痠하니 正以腎脈이 起于足하야 循膕內하야 出膕內廉하야 貫脊屬腎하며 絡膀胱하고 又腰는 爲腎之府 故로 病如是也라 又三日則十四日矣니 其病不已則死라 但冬之日入은 在申하야 以金旺木衰 故로 冬死于日入이오 夏之早食은 在卯하야 以木旺亦不能扶 故로 夏死于早食也라 ○ 景岳: 此는 肝木傳土而土邪復傳水藏也라 木受傷者는 金勝則危 故로 冬畏日入이오 肝發病者는 木強則劇 故로 夏畏早食時也라 ○ 張: 楊元如曰 按진대 素問標本病傳論에 云肝病은 頭目眩하고 脇支滿하니 三日에 體重身痛하고 五日而脹하고 三日에 腰脊小腹脛痠하고 三日不已면 死하니 冬日入이오 夏早食이라하니라 蓋病先發于肝 故로 頭目眩而脇支滿하고 三

〔4〕病先發于脾一日而之胃二日而之腎三日而之膀胱十日不已死冬人定夏晏食

馬는 “『標本病傳論』에 ‘脾病은 몸이 아프고 무거우니 1일에 脹滿하고 2일에 少腹과 腰脊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리고 3일에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며 小便이 나오지 않고 10일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겨울에는 人定이요 여름에는 晏食이다.’고 했다. 이것은 邪氣가 脾에 들어가 相傳하여 죽는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病이 먼저 脾에서 發하면 마땅히 몸이 아프며 무겁게 된다. 1일에 脾로부터 胃府에 傳해지면 마땅히 脹滿하게 된다. 또한 2일은 곧 3일이니, 土가 水를 乘하여 이에 腎으로 傳해지면 마땅히 少腹과 腰脊이 아프고 정강이가 시리게 된다. 또한 3일은 곧 6일이니, 腎이 스스로 (病을) 伏膂의 脈과 膀胱府로 傳하면 마땅히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고 小便이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10일은 곧 16일이니, 그 病이 낫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겨울의 人定은 亥時에 있어 土가 水를 이기지 못하므로 겨울에는 人定에 죽고 여름의 晏食은 寅時에 있어 木이 土를 剋하므로 여름에는 晏食에 죽는다.”<sup>20)</sup>고 하였고, 景

日而之脾하면 則體重身痛하고 五日而之胃則脹하고 三日而之腎하면 則腰脊小腹脛痠이라 冬日入과 夏早食은 乃木氣絶于卯酉金旺之時라하니라 ○ 黃: 冬日入은 金旺木刑也요 夏早食은 火旺木虛也라 ○ 譯解: 蚤與早通이라 蚤食은 指早晨卯時니 吃早飯的時候라 卯屬木하니 病先發于肝者는 在木旺之時하야 不能勝任當令之勢하야 所以死于早食的時候라 日入은 爲下午屬金的申酉兩個時辰이니 金旺木衰하야 所以肝病死於冬季의 日入之時라 ○ 語譯: 日入은 爲申酉之時니 屬金하야 金旺木衰 故로 肝病은 易于此時死亡이라 王冰이 曰早食은 早于食時니 則卯正之時也라하니라 卯는 屬木하니 木旺之時에 病發于肝하면 勢不能勝 故로 死라

20) 馬: 標本病傳論에 云脾病은 身痛體重하니 一日而脹하고 二일에 少腹腰脊脛痠하고 三日에 背脊筋痛하며 小便閉하고 十日不已면 死하니 冬人定이오 夏晏食이라하니라 此는 言邪氣

岳·『語譯』에서 “이것은 土邪가 水를 乘하여 表裏가 다 相傳한 것이다. 人定은 亥時에 있어 겨울에 土가 病든 경우에 (水를) 두려워하니 寒水가 도리어 土를 遏진여기기 때문이다. 晏食은 巳時에 있어 여름에 脾가 病든 경우에 두려워하니 戊己가 왕성한 곳이어서 邪氣가 합해져 病이 되기 때문이다.”<sup>21)</sup>고 하였고, 張은 “楊元如가 ‘대개 病이 脾에서 發하면 몸이 아프며 무겁고 1일에 胃로 가면 脹滿해지고 2일에 腎으로 가면 少腹과 腰脊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리게 된다. 膂膀胱은 膀胱이 脊背의 筋筋에 붙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3일에 膂膀胱으로 가면 背脊의 힘줄이 아프며 小便이 나오지 않게 된다. 人定은 寅時에 있어 木이 旺盛하여 土氣가 끊어진 것이요 여름의 晏食은 亥時에 있어 水가 泛濫하여 土氣가 敗絶한 것이다.’고 했다.”<sup>22)</sup>고 하였고, 黃·『譯解』에서

入脾하여 而有相傳之死期也라 病先發于脾하면 其證이 當身痛體重이라 一日而自傳于胃府하면 其證이 當爲脹이라 又二日則三日矣니 土來乘水하여 乃傳于腎하면 其證이 當少腹腰脊痛而脛痠也라 又三日則六日矣니 腎이 自傳于伏膂之脈과 膀胱之府하면 其證이 當背脊筋痛而小便亦閉也라 又十日則十六日矣니 其病不已면 死라 但冬之人定은 在亥하야 以土不勝水 故로 冬死於人定이요 夏之晏食은 在寅하야 以木來剋土 故로 夏死于晏食也라

21) 景岳: 此는 土邪乘水而表裏俱相傳也라 人定은 在亥하야 而土病於冬者畏之하니 寒水反能侮土也라 晏食은 在巳하야 而脾病於夏者畏之하니 以戊己王鄉하야 而合邪爲患也라 ○ 語譯: 人定은 指亥時라 冬에 寒水盛하고 亥時尤勝하야 土難制之 故로 脾病于此에 易死라 晏食은 指巳時라 夏에 濕土大行하고 巳時土旺하야 病發于脾하야 過亢도 亦能致死라

22) 張: 楊元如曰 按진대 素問標本病傳論에 云脾病은 身重體痛하니 一日而脹하고 二日少腹腰脊痛脛痠하고 三日에 背脊筋痛하며 小便閉하고 十日不已면 死하니 冬人定이요 夏晏食이라 하니라 蓋病發于脾하면 則身痛體重하고 一日而之胃則脹하고 二日而之腎하면 則少腹腰脊痛脛痠이라 膂膀胱者는 膀胱附于脊背之筋筋也라 是以로 三日而之膂膀胱하면 則背脊筋痛하며 小便閉라 人定은 在寅하야 木旺而土絶也요 夏之晏

“人定은 바로 사람들이 이미 안식했다는 뜻이요, 또한 황혼 뒤의 安眠하는 시각을 가리킨 것이다. 晏食은 곧 늦게 저녁을 먹는 때다. 이로 인하여 겨울에는 대부분 戌時에 이미 잠자고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戌時에 晚餐하니, 戌은 土에 屬하여 病이 먼저 脾에서 發한 것이 傳變하여 위태로움에 이르러 (戌時가) 土가 마땅히 旺盛해지는 때이지만 (土氣가) 왕성치 못하여 脾氣가 끊어지고 다함에 이르러 죽게 된다고 認識한 것이다. 척추를 끼고 있는 肌肉을 膂라하니, 膀胱經이 行하는 곳이다.”<sup>23)</sup>고 하였다.

(5) 病先發于胃五日而之腎三日而之膂膀胱五日而上之心二日不已死冬夜半夏日昃

馬·景岳·黃·『譯解』·『語譯』·『校釋』에서 “標本病傳論”에 ‘胃病은 脹滿하니 5일에 少腹과 腰脊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리고 3일에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며 小便이 나오지 않고 5일에 몸이 무겁고 6일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겨울에는 夜半이요 여름에는 日昃이다.’고 했다. 이것은 邪氣가 胃에 들어가 相傳하여 죽는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胃病은 그 證이 마땅히 脹滿하고 5일에 곧 胃에서 腎으로 傳해지니 마땅히 少腹과 腰脊이 아프고 정강이가 시큰거린다. 또한 3일은 곧 8일이니, 腎病이 스스로 府로 傳하면 마땅히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고 小便이 스스로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5일은 곧 13일이니, 또 위로 心으로 傳하면 마땅히 心痛하게 된다.

食은 在亥하야 水泛而土敗也라하니라

23) 黃: 夾脊之肉을 曰膂니 膀胱之經所行也라 冬人定은 水旺侮土也요 夏晏食은 金旺土虛也라 ○ 譯解: 人定은 卽許多人都已安食의 意思요 也就是指黃昏後安眠時刻이라 晏食은 卽晚餐時라 因冬季大都在戌時已睡覺하고 夏季一般也到了戌時才進晚餐이니 戌屬土하야 所以認爲病先發于脾의 傳變到危殆하야 在土當旺的時候로대 而不能旺하야 以致於脾氣絶竭而死라

또한 2일은 곧 15일이니, 病이 낫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겨울의 夜半은 子時에 屬하여 土가 水를 이기지 못하므로 겨울에는 夜半에 죽고 여름의 日昃은 未時에 있어 土氣가 衰하므로 여름에는 日昃에 죽게 된다.<sup>24)</sup>”고 하였고, 張은 “대개 病이 먼저 胃에서 發하므로 脹滿해지고 5일에 腎으로 가면 少腹과 腰脊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3일에 膂와 膀胱으로 가면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고, 5일에 心으로 가면 몸이 무겁게 된다. 心은 血脈을 주관하는데, 血脈은 筋骨을 濡養하고 關節을 滑利케 한다. 2는 火의 生數요 6일은 水의 成數니, 2일에 죽는 것은 火의 生氣가 끊어지고 6일에 죽는 것은 水가 乘하여 火가 寂滅되므로 冬夜半은 水가 乘하여 火가 寂滅한 뜻이요, 夏日昃은 또한 太陽의 生氣가 끊어진 것이다.<sup>25)</sup>”고 하였다.

24) 馬: 標本病傳論에 云胃病은 脹滿하니 五일에 少腹腰脊痛筋痠하고 三일에 背脊筋痛하며 小便閉하고 五일에 身體重하고 六日不已면 死하니 冬夜半이오 夏日昃이라하니라 此는 言邪氣入胃하여 而有相傳之死期也라 胃病者는 其證이 當脹滿하고 五日則胃傳于腎하니 其證이 當少腹腰脊痛而筋痠也라 又三日則八日矣니 腎病이 自傳于府하면 其證이 當背脊筋痛而小便自閉也라 又五日則十三日矣니 又上而傳之于心하면 其證이 當心痛也라 又二日則十五日矣니 其病不已則死라 但冬之夜半은 屬子하야 土不勝水 故로 冬死于夜半이오 夏之日昃은 在未하야 土氣正衰 故로 夏死于日昃也라 ○ 景岳: 此는 土邪傳水而水復傳火 故로 自膀胱以及於心也라 下文 標本病傳論에 云冬夜半後는 丑也요 夏日昃은 天也니 皆土王之時 故로 胃病逢之하야 氣極則敗라 ○ 黃: 冬夜半은 水旺侮土也요 夏日昃은 土旺濕生也라 ○ 譯解: 日昃은 就是午後未時니 卽一至三時的時候라 ○ 語譯: 昃은 日過午偏斜라 ○ 校釋: 日昃은 午後니 約當未時라

25) 張: 按컨대 素問標本病傳論에 云胃病은 脹滿하니 五일에 少腹腰脊痛筋痠하고 三일에 背脊筋痛하며 小便閉하고 五일에 身體重하고 六日不已면 死하니 冬夜半이오 夏日昃이라하니라 蓋病先發于胃 故로 脹滿하고 五日而之腎하면 則少腹腰脊痛筋痠하고 三日而之膂膀胱하면 則背脊筋痛하고 五日而上之心하면 則身體重

[6] 病先發于腎三日而之膂膀胱三日而上之心三日而之小腸三日不已死冬大晨夏早晡

馬·景岳·張·黃·『譯解』·『語譯』·『校釋』에서 “살펴보건대 『素問·標本病傳論』에 ‘腎病은 少腹과 腰脊이 아프고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3일에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며 小便이 나오지 않고 3일에 腹脹하고 3일에 양쪽 옆구리가 아프고 2일에 낫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대개 病이 먼저 腎에서 發하기 때문에 少腹과 腰脊이 아프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3일에 膂膀胱으로 가면 등과 등골뼈의 힘줄이 아프며 小便이 나오지 않는다. 3일에 위로 心으로 가면 脹滿해지니, 足少陰腎脈이 아래로 膀胱에 絡하고 위로 배로부터 올라가 胸中으로 흘러가 肺로 들어가 心에 絡하는데, 이 邪氣가 臟에 들어감에 또한 血脈을 따라 흘러 傳해지기 때문이다. 위 글에서 病이 心에 있으므로 몸이 무겁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膀胱으로부터 위로 心에 傳해지고 다시 心으로부터 아래로 小腸에 傳해지므로 腹脹한 것이다. 冬大晨은 寅卯의 木이 왕성한 때이니 木이 왕성하면 水氣가 새어나간 것이요, 夏晡는 土氣가 주관하는 때이니 土가 水를 剋한 것이다. 3일은 水火의 生氣가 모두 끊어진 것이다. 2일은 火의 生氣가 끊어진 것이다. 대개 病들고 또한 죽음에 먼저 病이 發한 臟氣가 끊어져 죽는 것이 있고 傳해진 곳의 臟氣가 끊어져 죽는 것이 있는데, 『靈樞』와 『素問』經中에 다소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배우는 者가 스스로 마땅히 이치로 會שמ해야 한다.<sup>26)</sup>”고 하였다.

라 蓋心主血脈하니 血脈者는 所以濡筋骨而利關節者也라 二는 乃火之生數요 六日者는 水之成數也니 死于二日者는 火之生氣絶也요 死于六日者는 水乘而火滅也라 故로 冬夜半者는 卽水乘火滅之義요 夏日昃者는 亦太陽之生氣絶也라

26) 馬: 標本病傳論에 云腎病者는 少腹腰脊痛筋痠하고 三일에 背脊筋痛하며 小便閉하고 三

〔7〕病先發于膀胱五日而之腎一日而之小腸一日而之心二日不已死冬鷄鳴夏下哺

馬·張은 “『標本病傳論』에 ‘膀胱病은 小便이 나오지 않으니 5일에 少腹이 脹滿하고 腰脊이 아프며 正강이가 시큰거리고 1일에 腹脹하고 1일에 몸이 아프고 2일에 낫지 않으면 죽는데, 겨울에는 鷄鳴이요 여름에는 下哺다.’고 했다. 이것은 邪氣가 膀胱으로 들어가 相傳하여 죽는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膀胱病은 마땅히 小便이 나오지 않고 5일에 스스로 腎으로 傳하니, 그 證이 마땅히 少腹이 脹滿하

日에 腹脹하고 三日에 兩脇支痛하고 二日不已면 死하니 冬大晨이요 下晏哺라하니라 此는 言 邪氣入腎하야 而有相傳之死期也라 腎病者는 其證이 當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三日則自傳于膀胱之府하니 其證이 當背脊筋痛而小便亦閉也라 又三日則六日矣니 水來勝火하야 膀胱上而之心하면 其證이 當心痛也라 又三日則九日矣니 心自傳小腸之府하면 其證이 當小腹脹也라 又二日則十一日矣니 其病不已則死라 但冬之大明은 在寅木하고 夏之晏哺는 以向昏하야 土能剋水 故로 冬死于大晨而夏死于晏哺也라 ○ 景岳: 此는 水病乘火而表裏皆相傳也라 大晨는 辰刻也니 爲水之庫요 晏哺는 戌時也니 土能伐水 故로 病發於腎者는 不能出乎此也라 ● 張: 按컨대 素問標本病傳論에 曰腎病者는 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三日에 背脊筋痛하야 小便閉하고 三日에 腹脹하고 三日에 兩脇支痛하고 二日不已면 死라하니라 蓋病先發于腎 故로 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三日而之腎膀胱하면 則背脊筋痛하야 小便閉라 三日而上之心則脹하니 蓋足少陰腎脈이 下絡膀胱하고 上從腹注胸中하야 入肺絡心하니 此邪入于藏에 亦從血脈流傳也라 上節에 病在心 故로 身體重이오 此는 從膀胱而上傳於心하고 復從心而下傳小腸 故로 腹脹也라 冬大晨者는 乃寅卯木旺之時니 木旺則洩其水之氣矣라 夏晏哺는 土氣所主之時니 土剋水也라 三日者는 水火之生氣並絶이라 二日者는 火之生氣絶也라 蓋病之且死에 有死于先發之藏氣絶者하고 有死于所傳之藏氣絶者하니 是以 靈素經中에 少有不同하니 學者가 自當理會라 ○ 黃: 冬大晨은 火生水死也요 夏晏哺는 土旺水刑也라 ○ 譯解: 大晨은 指黎明時刻이라 晏哺는 指黃昏時刻이라 ○ 語譯: 晏哺는 指黃昏이라 ○ 校釋: 大晨은 天光大亮하니 約當卯時라 晏哺는 黃昏的時候니 約當戌時라

며 腰脊이 아프고 正강이가 시큰거리다. 또한 1일은 곧 6일이니, 水가 火를 乘하여 腎이 小腸에 傳하면 마땅히 小腹이 脹滿해진다. 또한 1일은 곧 7일이니, 또한 心으로 傳하면 마땅히 心痛한다. 또한 2일은 곧 9일이니, 그 病이 낫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겨울의 鷄鳴은 丑時에 있어 土가 水를 剋하므로 겨울에는 鷄鳴에 죽고, 여름의 下哺는 申時에 있어 金이 衰하여 水를 生하지 못하므로 여름에는 下哺에 죽는 것이다.<sup>27)</sup>”고 하였고, 景岳·黃·『譯解』·『校釋』에서 “이것은 또한 水臟과 火臟이 表로부터 裏로 相傳한 것이다. 겨울의 鷄鳴은 丑時에 있어 陰이 極盛한 것이요, 여름의 下哺는 未時에 있어 水가 두려워하는 바니, 膀胱이 水府이므로 그 極盛하고 衰極함에 다 죽는 것이다.<sup>28)</sup>”고 하였다.

27) 馬: 標本病傳論에 云膀胱病은 小便閉하니 五일에 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一日에 腹脹하고 一日에 身體痛하고 二日不已면 死하니 冬鷄鳴이요 夏下哺라하니라 此는 言邪入膀胱하야 而有相傳之死期也라 膀胱病者는 其證이 當小便閉하고 五日則自傳于腎하니 其證이 當少腹脹腰痛而筋痠也라 又一日則六日矣니 水來乘火하야 腎傳之小腸하면 其證이 當小腹脹也라 又一日則七日矣니 又傳之於心하면 其證이 當心痛也라 又二日則九日矣니 其病不已면 死라 但冬之鷄鳴은 在丑하야 土剋水 故로 冬死于鷄鳴이요 夏之下哺는 在申하야 金衰不能生水 故로 夏死于下哺也라 ○ 張: 按컨대 標本病傳論에 云膀胱病은 小便閉하니 五일에 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一日에 腹脹하고 一日에 身體痛하고 二日不已면 死라하니 蓋病發于膀胱 故로 小便閉하고 五日而之腎하면 則少腹脹腰痛筋痠하고 一日而之小腸하면 則腹脹하고 一日而之心 故로 身體痛也라 冬鷄鳴과 夏下哺는 卽上節大晨晏哺之時也라 按컨대 五藏相傳而有膀胱胃府者는 胃居中爲水穀之海니 乃五藏之生原이요 太陽은 爲諸陽主氣也라

28) 景岳: 此는 亦水火二藏이 自表而裏之相傳也라 冬之鷄鳴은 在丑하야 陰之極也요 夏之下哺는 在未하야 水所畏也니 膀胱爲水府 故로 其盛極衰極에 皆能死라 ○ 黃: 冬鷄鳴은 水旺無制也요 夏下哺는 土旺水刑也라 ○ 譯解: 鷄鳴은 就是夜半之後니 約當丑時的時候라 下哺는 就是午後の未時左右라 ○ 校釋: 下哺는 午後니

〔8〕諸病以次相傳如是者皆有死期不可刺也間一藏及二三四藏者乃可刺

馬는 "이것은 相傳하여 甚한 경우에 刺鍼하더라도 죽게 되고, 間藏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경우에는 刺鍼하여 治療할 수 있음을 結論해 말한 것이다. 諸經의 病이 다 相剋하는 次序가 있으니, 相傳하여 病이 甚한 경우에는 (한 臟器에만) 단독으로 (邪氣가) 行하므로 (다시 傳하지 못하여) 刺鍼하지 못하고 죽는 때가 있는 것이다. 만일 間傳하여 相生하면 한 臟을 넘어 (病이) 始作하여 서너 臟에 미침이 바로 相生의 次序로 한 것이니, 間하는 것으로 (病이) 함께 行해야 이에 刺鍼하여 다스릴 수 있다.<sup>29)</sup>"고 하였고, 張은 "『玉機眞藏論』에 '五臟이 서로 通하는지라 傳移함에 다 次序가 있다.'고 했으니, 五臟에 病이 있으면 각기 그 所勝으로 傳한다. 病들어 장차 죽는 것은 반드시 먼저 傳行하여 그 所不勝에 이르면 病들어 죽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所勝으로 逆傳한 것이니, 다 죽는 때가 있음이요 刺鍼하지 못한다. 間一藏과 같은 것은 바로 心이 肝으로 傳하고 肺가 脾로 傳하는 것이니, 子가 母를 乘한 것이다. 間二藏은 心이 脾로 傳하고 肺가 腎으로 傳하는 것이니, 바로 母가 子를 乘하여 子母의 氣가 서로 資生한 것이다. 間三藏은 心이 腎으로 傳하고 肺가 心으로 傳하는 것이니, 所不勝을 좇아 온 것은 微邪다. 살펴보건대 五臟의 間傳이 단지 間三藏하되 間四藏함은 없는데, 이른바 間四藏은 臟이 府로 傳하고 府가 다시 다른 臟으로 傳하는 것이니, 대개 府도 또한 臟이

約當未時라

29) 馬: 此는 結言相傳而爲甚者는 死不可刺요 間藏而爲生者는 可刺之也라 諸經之病이 皆有相剋之次하니 是相傳爲病之甚은 甚者獨行 故로 有死期不可刺라 若間傳而爲相生하면 則間一藏爲始하야 及三四藏이 是乃相生之次니 所爲間者 并行이라야 乃可刺以治之也라

라 名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고 하였고, 『語譯』에서 "王冰이 '五臟이 서로 傳移함이 다 이와 같은데, 緩傳하는 것이 있고 急傳하는 것이 있다. 緩은 혹은 1年·2年·3년에 죽으며 그 다음은 3달이나 혹은 6달에 죽고, 急은 1일·2일·3일·4일이나 혹은 5-6일에 죽는데 곧 이러한 類들이다. 이 病傳하는 法을 살펴보니 五行의 氣를 그 日數로 稽考하면 이치가 상응하지 않는다. 五行으로써 법칙을 삼아 이기지 못하는 數로써 所勝으로 傳한 것은 火가 金에 傳함은 마땅히 1일이요 金이 木에 傳함은 2일이요 木이 土에 傳함은 4일이요 土가 水에 傳함은 3일이요 水가 火에 傳함은 5일임을 말한 것이다. 만일 자기가 이기는 數로써 不勝에 傳한 것은 木이 3일에 土로 傳하고 土가 5일에 水로 傳하고 水가 1일에 火로 傳하고 火가 2일에 金으로 傳하고 金이 4일에 水로 傳하는 것이다. 經의 傳日이 흉사 三陰三陽의 규칙을 따르는 것 같다. 『玉機眞藏論』에서 五臟이 서로 通하는지라 傳移함에 다 次序가 있으니 3월 혹은 6월이나 혹은 3일이나 혹은 6일이면 傳해져 마땅히 죽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다. 비록 그러나 오히려 마땅히 病에 臨함에 자세히 日數를 살펴보면 바야흐로 다 옳고 그를 따름이다. 間一藏에서 그치는 것은 앞의 한 臟을 지나 다시 傳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곧 木이 土로 傳하고 土가 水로 傳하고 水가 火로 傳하고 火가 金으로 傳하고 金이 木으로 傳하여 멈추는 것인데, 다 한 臟을

30) 張: 玉機眞藏論에 曰五臟相通移皆有次라 하니 五臟有病하면 則各傳其所勝이라 病之且死는 必先傳行하야 至其所不勝하면 病乃死라 故로 如是者는 乃逆傳其所勝이니 皆有死期요 不可刺也라 如間一藏者는 乃心傳之肝과 肺傳之脾니 子行乘母也라 間二藏者는 心傳之脾와 肺傳之腎이니 乃母行乘子하야 子母之氣가 互相資生者也라 間三藏者는 心傳之腎과 肺傳之心이니 從所不勝來者는 爲微邪也라 按五臟間傳이 止有間三而無間四니 所謂間四藏者는 以藏傳之府而 府復傳之于他藏이니 蓋府도 亦可以名藏也라

된 것이다. 3-4 臟에 이르는 것은 다 앞의 제 3-4 臟에 이름을 말한 것이니, 3 臟에 이르는 것은 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氣요 4 臟에 이르는 것은 다 나를 생해주는 父母에 이르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면 所生에害를 입히지 못하니, 곧 父子가 克伐하는 시기가 없음이요 氣가 順行하므로 刺鍼할 수 있다.'고 했다.<sup>31)</sup>고 하였고, 『校釋』에서 “間一臟은 五行이 相克하는 規律의 傳變 過程에 있어 한 臟器를 지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예를 들어 살펴보면 五行의 相克傳變은 肝→脾→腎→心→肺로 傳하는 것이요 間一臟은 肝이 腎으로 傳하는 것이니 나머지도 같고, 間二臟은 肝이 心으로 傳하는 것이고, 間三臟은 肝이 肺로 傳하는 것이고, 間四臟은 스스로 傳하는 것이니, 바로 臟腑表裏가 서로 傳함이 예를 들어 肝이 膽으로 傳하는 것 등이니, 이로 인하여 이러한 傳變方式은 다 그 所勝으로 傳變하는 次序로 向하므로 모두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글의 기술된 五行相克의 次序傳變에 의

거하여 살펴보면 疾病이 낮기 어렵고 밝해지면 죽는 때가 있음을 定할 수 있다. 『素問·玉機眞藏論』에 ‘五臟이 서로 通하는지라 傳移함에 다 次序가 있으니 五臟에 病이 있으면 각기 그 所勝으로 傳한다.’고 했고, 『素問·平人氣象論』에 또한 ‘脈이 四時에 反하고 間臟하지 아니함을 難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외에 『難經·五十三難』에 ‘七傳하는 者は 죽고 間臟하는 者は 산다.’고 했는데, 그 間臟이 所生으로 傳함으로 해석함이 본문과 다름이 있으니, 또한 一說을 갖추었다.<sup>32)</sup>고 하였다.

#### 【考 察】

##### 〔較註에 對한 考察〕

‘冬日入’에 대하여 馬蒔 등은 金氣의 衰함이 이미 甚하여 돕지 못하기 때문에, 景岳은 肺邪가 旺盛하므로 겨울에는 日入에 죽는다고 보았는데, 景岳과 같이 肺氣가 虛하여 金氣가 旺盛해지는 때에 正邪抗爭이 極甚해져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冬人定夏晏食’에 대하여 馬蒔는 人定과 晏食을 亥時와 寅時로 보아 土克水하고 木克土하기 때문에, 景岳은 晏食을 巳時로 보아 土邪가 旺盛하기 때문에, 志聰은 人定과 晏食을 寅時와 亥時로 보아 木克土하고 水泛土敗하므로 죽는다고 보았으며, 『譯解』에서는 人定과

31) 語譯: 王冰이 曰五臟相移皆如此나 有緩傳者하고 有急傳者라 緩者는 或一歲二歲三歲而死하며 其次或三月커나 若六月而死하고 急者는 一日二日三日四日커나 或五六日而死하니 則此類也라 尋此病傳之法하니 皆五行之氣를 考其日數하면 理不相應이라 夫以五行爲紀하야 以不勝之數傳于所勝者는 謂火傳于金은 當云一日이오 金傳于木은 當云二日이오 木傳于土는 當云四日이오 土傳于水는 當云三日이오 水傳于火는 當云五日也라 若以己勝之數傳于不勝者는 則木三日傳于土하고 土五日傳于水하고 水一日傳于火하고 火二日傳于金하고 金四日傳于水라 經之傳日이 似法三陰三陽之氣라 玉機眞藏論에 曰五臟相通移皆有次하니 三月若六月커나 若三日커나 若六日이면 傳而當死라하니 此與同也라 雖爾나 猶當臨病詳視日數면 方悉是非爾라 間一臟止者는 謂隔過前一臟而不更傳也니 則謂木傳土土傳水水傳火火傳金金傳木而止니 皆間隔一臟也라 及至三四臟者는 皆謂至前第三第四臟者니 諸至三臟者는 皆是其已不勝之氣也요 至四臟者는 皆至已生之父母也라 不勝則不能爲害于被所生하니 則父子無克伐之期요 氣順以行 故로 刺之可矣라 하니라

32) 校釋: 間一臟은 是指在依五行相克規律의 傳變過程에 隔過一個臟器하니 如按컨대 五行相克傳變은 是肝→脾→腎→心→肺요 間一臟은 就是肝傳腎이니 同詳이오 間二臟은 就是肝傳心이오 間三臟은 就是肝傳肺요 間四臟則爲自傳이니 則臟腑表裏相傳이 如肝傳膽等이니 因爲這些 傳變方式은 都打破了向其所勝者傳變의 次序니 所以都有回生的可能이라 但如按前文所述依五行相克의 次序傳變則疾病難已하고 甚至死期可定이라 素問玉機眞藏論에 云五臟相通移皆有次하니 五臟有病하면 則各傳其所勝이라하고 素問平人氣象論에 亦云脈反四時와 及不間臟을 曰難이라 하고 此外에 難經五十三難에 曰七傳者는 死하고 間臟者는 生이라하니 其釋間臟爲傳其所生이 與本文으로 有異하니 亦可備一說이라

晏食을 모두 戌時로 보았는데, 여름에 있어 晏食은 寅時 쪽으로 보아야 하며 巳時와 戌時は 五行의 丑에 맞추다 보니 너무 時間이 늦기 때문에 馬蒔와 같이 人定과 晏食을 亥時와 寅時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膂膀胱'에 대하여 志聰은 膀胱이 脊背의 膂筋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黃은 脊椎를 끼고 있는 肌肉을 膂라하고 이 곳을 膀胱經이 지나가기 때문에 膂膀胱이라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黃과 같이 膀胱經이 脊背腰部로 走行하므로 이 곳의 肌肉을 합하여 膂膀胱이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冬夜半夏日昃'에 죽는 것에 대하여 馬蒔와 黃은 水가 土를 侮하고 土氣가 衰하므로, 志聰은 水克火하고 太陽의 生氣가 敗絶하여 죽는다고 보았는데, 馬蒔 등의 胃病으로 인하여 土가 水를 제압하지 못하고 土氣가 旺盛한 때에 正氣가 邪氣와 다투어 衰竭해지므로 죽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冬鷄鳴夏下晡'에 대하여 馬蒔는 鷄鳴과 下晡를 丑時와 申時로 보아 土克水하고 金氣가 衰하여 돕지 못하므로, 景岳은 丑時와 未時로 보아 陰極하고 土克水하므로 죽는다고 보았는데, 時間으로 볼 때 馬蒔와 같이 丑時와 申時로 보아 水氣가 衰하여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大氣가 臟에 들어오는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病이 먼저 心에서 發하면 하루에 肺로 轉移하고 사흘에 肝으로 轉移하고 닳새에 脾로 轉移하는데,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夜半에, 여름에는 日中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肺에서 發하면 사흘에 肝으로 轉移하고 하루에 脾로 轉移하고 닳새에 胃로 轉移하는데, 열흘에 낫지 않으면 죽

되 겨울에는 日入에, 여름에는 日晡에 죽습니다. 病이 肝에서 먼저 발생하면 사흘에 脾로 轉移하고 닳새에 胃로 轉移하고 사흘에 腎으로 轉移하는데,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日入에, 여름에는 晡食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脾에서 발생하면 하루에 胃로 轉移하고 이틀에 腎으로 轉移하고 사흘에 膂·膀胱으로 轉移하는데, 열흘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人定에, 여름에는 晡食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胃에서 발생하면 닳새에 腎으로 轉移하고 삼일에 膂·膀胱으로 轉移하고 닳새에 올라가 心으로 轉移하는데, 이틀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夜半에, 여름에는 日昃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腎에서 발생하면 사흘에 膂·膀胱으로 轉移하고 사흘에 올라가 心으로 轉移하고 사흘에 小腸으로 轉移하는데,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大晨에, 여름에는 早晡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膀胱에서 발생하면 닳새에 腎으로 轉移하고 하루에 小腸으로 轉移하고 하루에 心으로 轉移하는데, 이틀에 낫지 않으면 죽되 겨울에는 鷄鳴에, 여름에는 下晡에 죽습니다. 모든 病이 순서대로 서로 傳變함이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죽는 時期가 있으니 刺할 수 없고, 한 臟 및 두서너트 臟을 건너뛰는 경우는 비로소 刺할 수 있습니다.

#### IV. 意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九鍼을 夫子께 受業을 받고 익힌 뒤에 스스로 여러 治療方法을 살펴보았는데, 혹 導引行氣·按摩·灸法·熨法·刺法·火鍼法과 湯藥을 마시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治療法을 잘 지켜 行해야 하는 것이요, 아니면 다 窮究하여 行해야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위의 여러 가지 治方은 여러 사람이 行해야 할 것이며 여러 사람에게 施術할 방편이지, 한 사람이 다 할 바가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의 道理를 굳게 지켜 잃지 아니하면 萬物을 하나의 道理로 다 마름질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니, 이제 내가 夫子께 陰陽의 가장 긴요한 요점과 虛實의 이치와 正氣가 기울어지고 흠어지는 허물과 邪氣가 侵犯하여 病이 相生의 순서로 傳變하여 治療할 수 있는 경우들을 이미 들었지만, 아직 病의 變化가 심하여 邪氣가 蔓延되고 擴散되어 안으로 傳해짐과 正氣가 敗絶하여 治療할 수 없는 경우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緊要하시도다! 물음이여! 道는 밝음이 낮의 빛남과 같고, 궁색함이 밤의 어두움과 같으니, 이 道를 잠시라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익힌다면 神妙함이 함께 성취되며 마치도록 끝까지 마땅히 익히고 익힌다면 神妙함이 저절로 얻어질 것입니다. 이런 神明을 生하는 이치를 책에 저술하여 後世에 남겨야지 사사로이 자기의 子孫에게 이런 이치를 傳해서는 안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日醒이라 말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陰陽의 이치에 밝아 모든 의혹이 한꺼번에 풀리고 술에 취함에서 술이 깨와 같은 것이 日醒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夜瞑이라 말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고요하고 적막하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득하고 움직임이 없어 형체가 드러나지 않으니, 邪氣가 침범함에 毛髮이 淅淅然하듯이 오싹오싹하고 腠理가 邪氣로 인해 閉藏치 못하고 開發됨에 正氣가 흠어져 消盡되고 浸淫하여 점차 나아간 邪氣는 흠어지고 넘쳐 皮毛에서 안의 血脈으로 傳해지고

머무른 뒤에 앞의 四時의 不正한 邪氣가 계속 臟으로 들어가 邪氣는 擴散蔓延되고 正氣는 消盡하여 배가 아프고 正氣가 下焦로 내려가지 못하여 邪氣가 아래에서 浸淫되고 蔓延되면 반드시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四時의 不正한 邪氣가 臟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病이 먼저 心에서 생기면 하루쯤 있다가 病이 肺로 傳해지고 사흘쯤 지나 肝으로 傳해지고 닷새쯤에 脾로 傳해지는데, 病이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夜半에 죽으며 여름에는 日中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肺에서 생기면 사흘쯤 있다가 肝으로 傳해지고 하루쯤 지나 脾로 傳해지고 닷새쯤에 胃로 傳해지는데, 病이 열흘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日入에 죽으며 여름에는 日出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肝에서 생기면 사흘쯤 있다가 脾로 傳해지고 닷새쯤 지나 胃로 傳해지고 다시 사흘쯤에 腎으로 傳해지는데, 病이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日入에 죽으며 여름에는 朝食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脾에서 생기면 하루쯤 있다가 胃로 傳해지고 이틀쯤에 腎으로 傳해지고 사흘쯤 지나 膀胱經이 지나가는 脊膂의 肌肉에 傳해지는데, 病이 열흘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人定에 죽으며 여름에는 朝食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胃에서 생기면 닷새쯤 있다가 腎으로 傳해지고 삼일쯤에 膀胱經의 脊膂로 傳해지고 닷새쯤 지나 邪氣가 위로 올라가 心으로 傳해지는데, 病이 이틀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夜半에 죽으며 여름에는 日晡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腎에서 생기면 사흘쯤 있다가 膀胱經의 脊膂로 傳해지고 사흘쯤 지나 邪氣가 위로 올라가 心으로 傳해지고 다시 사흘쯤에 小腸으로 傳해지는데, 病이 사흘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大晨에 죽으며 여름에는 晡에 죽습니다. 病이 먼저 膀胱에서 생기면

땃새쫂 있다가 腎으로 傳해지고 하루에 지나 小腸으로 傳해지고 다시 하루쫂에 心으로 傳해지는데, 病이 이틀에 낫지 않으면 죽게 되니 겨울에는 鷄鳴에 죽으며 여름에는 下晡에 죽습니다. 모든 病이 이러한 相克의 次序로써 서로 病傳함이 이와 같은데, 이것은 모두 죽는 時期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刺鍼하여도 治療할 수 없습니다. 다만 子乘母하는 間一臟과 母乘子하는 間二臟과 微邪로 傳所不勝하는 間三臟과 表裏相傳하는 間四臟은 刺鍼하여 治療할 수 있습니다.

## V. 結 語

『靈樞·病傳』에 대하여 각주를 比較考察하고 그 主要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本篇은 『素問·標本病傳論』의 후반부의 내용과 같은데, 病傳日數와 證候에만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후대에 오면서 같은 文章이 중복되었거나 다른 篇과 誤入되어 한 篇으로 합쳐지거나 篇次에 어그러짐이 있어 두 篇으로 나뉘어 졌다고 사료된다.
2. 第一章에서는 '大氣'를 四時의 큰 不正한 邪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第一章에서는 '被而服之'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익히고 익힌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4. 第一章에서는 '下淫'은 邪氣가 內臟에 들어오면 正氣가 弱하여 아래로 下降치 못하여 邪氣가 下焦에서 擴散되고 蔓衍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第二章에서는 '冬日入'에 죽는 것은 肺氣가 虛하여 金氣가 旺盛해지는 때에 正邪抗爭이 極甚해져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第二章에서는 '冬人定夏晏食'은 人定과 晡食을 亥時와 寅時 쫂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7. 第二章에서는 '膂膀胱'은 膀胱經이 脊背腰部로 走行하므로 이 곳의 肌肉을 合하여 膂膀胱이라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8. 第二章에서는 '冬夜半夏日昃'에 죽는 것은 胃病에 土가 水를 制압하지 못하고 土氣가 旺盛한 때에 正氣가 邪氣와 다투어 衰竭해지므로 죽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9. 第二章에서는 '冬鷄鳴夏下晡'에 죽는 것은 水氣가 衰해져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10. 第二章의 五臟과 胃·膀胱疾病의 傳變과 死期 및 『素問·標本病傳論』에 나와 있는 證候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1. 第二章의 五臟과 胃·膀胱疾病死亡時刻을 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                        |         |                        |         |                        |         |                        |          |     |
|------------------------|---------|------------------------|---------|------------------------|---------|------------------------|----------|-----|
| 心病<br> <br>先心痛         | 1일<br>→ | 肺<br> <br>咳            | 3일<br>→ | 肝<br> <br>脇支痛          | 5일<br>→ | 脾<br> <br>閉塞不通<br>身痛體重 | 3일<br>→  | 不已死 |
| 肺病<br> <br>喘咳          | 3일<br>→ | 肝<br> <br>脇支滿痛         | 1일<br>→ | 脾<br> <br>身重體痛         | 5일<br>→ | 胃<br> <br>脹            | 10일<br>→ | 不已死 |
| 肝病<br> <br>頭目眩<br>脇支滿  | 3일<br>→ | 脾<br> <br>體重身痛         | 5일<br>→ | 胃<br> <br>脹            | 3일<br>→ | 腎<br> <br>腰脊少腹痛<br>脛痠  | 3일<br>→  | 不已死 |
| 脾病<br> <br>身痛體重        | 1일<br>→ | 胃<br> <br>脹            | 2일<br>→ | 腎<br> <br>少腹腰脊痛<br>脛痠  | 3일<br>→ | 膀胱<br> <br>背脊筋痛<br>小便閉 | 10일<br>→ | 不已死 |
| 胃病<br> <br>脹滿          | 3일<br>→ | 腎<br> <br>少腹腰脊痛<br>脛痠  | 3일<br>→ | 膀胱<br> <br>背脊筋痛<br>小便閉 | 3일<br>→ | 心<br> <br>身體重          | 3일<br>→  | 不已死 |
| 腎病<br> <br>少腹腰脊痛<br>脛痠 | 5일<br>→ | 膀胱<br> <br>背脊筋痛<br>小便閉 | 3일<br>→ | 小腸<br> <br>腹脹          | 5일<br>→ | 心<br> <br>兩脇支痛         | 2일<br>→  | 不已死 |
| 膀胱病<br> <br>小便閉        | 5일<br>→ | 腎<br> <br>少腹脹<br>腰脊痛脛痠 | 1일<br>→ | 小腸<br> <br>腹脹          | 1일<br>→ | 心<br> <br>身體重          | 2일<br>→  | 不已死 |

표 4.

| 臟<br>時 | 心病 | 肺病 | 肝病 | 脾病 | 胃病 | 腎病 | 膀胱病 |
|--------|----|----|----|----|----|----|-----|
| 冬季     | 夜半 | 日入 | 日入 | 人定 | 夜半 | 大晨 | 鷄鳴  |
| 夏季     | 日中 | 日出 | 蚤食 | 晏食 | 日昃 | 早晡 | 下晡  |

## VI. 參考文獻

### 文獻類

1. 廓龔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2.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
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6. 王永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7. 王叔和撰, 福州市人民醫院校釋,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9.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0.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1. 陣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3. 皇甫謐著·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4.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3.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4. 鄭鳳欽, 漢英英漢中醫大辭典,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1994.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6.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 漢英醫藥大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 辭典類

1.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2.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